



지은이 - 린다 수 박
 옮긴이 - 최인자
 그림 - 오승민
 펴낸곳 - 서울문화사

영어로 씌어진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어린이, 한국의 이야기

〈뽕나무 프로젝트〉

줄리아는 미국에 이민 간 부모 때문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교포 2세 어린이입니다. 줄리아에게는 패트릭이라는 미국 어린이인 단짝 남자 친구가 있어요.

줄리아는 냄새나는 김치를 아주 싫어하지만 패트릭은 집에 놀러와 줄리아의 엄마가 집어주는 한 젓가락 김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동네의 단짝 친구가 된 패트릭과 함께 두 사람은 플레인필드 근교의 농장 일을 통해 건강한 자연과 사회를 배우는 위글클럽에 가입하고 8월에 주에서 주관하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과제를 고르게 되지요. 줄리아의 엄마가 누에를 길러 비단실을 뽑아 수를 놓는 과정까지 관찰 기록해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에 패트릭은 굉장히 기뻐하며 찬성하지만 줄리아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한국적인 과제를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도 걸으로는 싫지 않은 척 하면서 줄리아와 패트릭의 진짜 속마음을 숨긴 흥미진진한 뽕나무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세계 속의 모든 나라의 문화가 쉽게 전달되는 시대에 미국 이민 자녀 어린이의 눈을 통해 깨달아가는 건강한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각각 고유한 나라의 민족성 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가는지 재미나게 그려줍니다. 흑인아저씨 딕슨씨의 도움으로 뽕나무 잎을 얻어 누에를 키워내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줄리아와 패트릭이 얻는 것은 2등상보다 훨씬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글쓴이 린다 수 박 선생님은 실제로 이민 가정에서 자라 줄리아처럼 한국말을 전혀 못하면서 컸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관한 소설을 계속 쓰게 되었다 합니다. 특히 〈뽕나무 프로젝트〉보다 먼저 씌어진 〈사금파리 한 조각〉은 뉴베리 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청소년문학상을 받은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고려 시대의 고아 소년 형필이가 훌륭한 도공으로 성공하는 내용을 쓴 감동적인 작품으로 〈해리 포터〉이야기보다 의미 있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미국의 청소년 교과서에 언급된 것은 물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읽고 있지요. 〈뽕나무 프로젝트〉 그리고 〈사금파리 한 조각〉 둘 다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꼭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감동의 선물입니다.

〈글/김영숙(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